

한승원의 <꿈>에 나타난 삶의 의미*

- <구운몽>의 계승과 변용으로서 -

이동길**

|| 차례 ||

1. 서론
2. 서사관점의 변화
 - 1) 종교적 갈등에서 자연의 섭리에 대한 인식으로
 - 2) 명분 중심의 삶에서 본능적 욕망 중심의 삶으로
3. 환몽구조 속의 세계와 그 의미의 변화
4. 세계인식의 전환과 삶의 의미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승원의 <꿈>에 나타난 삶의 의미를 <구운몽>과의 대비적인 면에서 연구하였다. <꿈>은 <구운몽>이 문제삼고 있는 ‘어떤 삶이 가치 있는가’가 아닌 ‘삶이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자연의 섭리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서사를 전개하여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인간의 삶을 재인식하게 하고 있다.

<꿈>은 이것을 위해 <구운몽>의 환몽구조와 그 속의 세계인 선계와 지상계를 이용하되 <구운몽>과 달리 선계와 지상계를 우주의 근원적인 운행원리의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재구조화하고 있다. <꿈>의 선계와 지상계는 우주의 운행과 영원한 시간과 같은 비가시적인 세계와 생노병사와 같은 가시적인 세계를 내포하면서 그것을 환몽구조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존재의 근거로서 선계를, 존재의 의미를 온전히 인식하는 곳으로서 지상계를 설정하여, 사람이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태어나 지상에서 사람의 근본을 온전히 구현해감으로써 다시 하늘로 되돌아간다는 논리를 펼쳐내고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도 계명문화대학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계명문화대학 교양과 교수.

이는 근대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매몰되어 ‘꿈’, 삶의 근본을 잃고 헛된 욕망을 좇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본래의 자신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주의 근원적인 운행원리와 삶의 근본인 ‘꿈’ 즉 ‘하나’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임을 말하고 있다.

주제어 : 꿈, 구운몽, 자연의 섭리, 선계, 지상계, 환몽구조, 삶의 의미, 기계론적 세계관

1. 서론

한승원의 <꿈>은 ‘이설본 구운몽’이란 부제처럼 김만중의 <구운몽>의 기본 줄거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다시 쓴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色, 財와 같은 본능적 욕구충족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작중인물을 통해 최대한 충족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두 작품은 그것을 문제 삼는 관점이 다르다.

김만중은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굴곡 많은 삶을 살다 인생의 만년에 <구운몽>을 쓰고 그를 통해 ‘어떤 삶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묻고 있다. 작품에서 김만중은 수도하는 승려인 성진의 삶과 부귀공명을 마음껏 누리려는 양소유의 삶을 그려내면서 환몽구조와 불교적 논리를 통해 비록 관념적 깨달음을 통해서이지만 둘 중 어느 하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유교적 질서에 입각한 현실적 세계와 불교의 초월적 세계를 모두 긍정함으로써¹⁾ 근본을 잃지 않고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다.

한승원은 이러한 <구운몽>의 기본줄거리와 환몽구조와 불교적 논리를

1) 장효현, 「<九雲夢>의 主題와 그 收容史에 관한 研究」(『金萬重文學研究』, 국학자료원, 1993, 138면)에서 “궁극적으로 어느 한 편의 세계에 대한 치우친 긍정 또는 부정의 인식이 아니라, 이 두 편의 세계를 모두 ‘긍정’하는 가운데에서, 두 세계를 貫流하는 이치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고 했다.

바탕으로 하여 현실적 욕망에 매몰된 현대인들에게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삶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개체의 존재의미를 영원한 시간속에 운행되는 우주의 근원적 운행원리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시 살피게 하여 생의 유한함에 구속되어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현세적 삶을 그리고 있다.

서사의 표면적 전경 속에 내재된 후경을 통해 “이기적이고 허황된 욕망으로 말미암은 인간본성의 파괴”²⁾에서 비롯된 공허한 삶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다운 세계를 인식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꿈>은 허황된 욕망으로 사는 삶이 헛된 ‘꿈’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삶의 근원을 알고 사는 삶이 진정한 ‘꿈’을 이루는 참된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연구³⁾에서는 <꿈>에 나타난 표면적인 변화에 치중하여 환몽구조 속에 설정되고 있는 서사관점의 변화와 세계의 의미변화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우주의 운행이라는 거대한 시간성에 대한 깨달음을 담아내는 서사’로 파악하면서도 그를 통해 존재의 유한함과 성적욕망을 그려내었다고 단편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을 뿐, 서사의 내재적 후경으로 드러나는 ‘우주의 운행이라는 거대한 시간성’ 속에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세계관과 그와 같은 세계관을 통한 현실적 삶의 재인식에 대한 점은 간과하고 있다.

2) 한승원, 『꿈』 ①, 문이당, 1998, 5면.(이하 작품 인용은 『꿈』 ①, ②로 표시함)

3) 설성경은 『구운몽 연구』(국학자료원, 1999, 280-301쪽)에서 <꿈>을 “우주의 운행이라는 거대한 시간성에 대한 깨달음을 담아내는 서사”로 파악하면서 그를 통해 존재의 유한함을 인식하게 하고 자유롭게 표출된 성적욕망을 통해 인간이 헤매는 미망(迷妄)의 조감도를 충실히 그려내었다고 했을 뿐 그 변화된 세계에 대한 의미분석은 간과하고 있다. 심치열은 『<구운몽>의 현대적 계승과 변용 연구』(『古小說研究』 제16집, 2003, 168쪽)에서 서사기법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면서 “<꿈>은 <구운몽>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되, 사상적 측면보다는 인간의 원초적 본질인 성적욕망과 인간의 유한성으로 주제의식을 선화한 작품으로 평가”하여 세계인식에 대한 면은 다루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꿈>을 <구운몽>의 계승과 변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되 특히 변용의 측면에서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세계와 그 의미를 밝히고 그 속에 내재된 인식의 전환과 삶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꿈>의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서사관점의 변화

1) 종교적 갈등에서 자연의 섭리에 대한 인식으로

<구운몽>과 <꿈>의 서사전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운몽>

- ① 육관대사가 형산 연화봉에서 불법을 베푸는 가운데 성진이 용궁을 다녀오다 여덟 선녀를 만난다.
- ② 성진이 여덟 선녀와 만난 뒤 수도의 적막함에 회의하고 속세의 부귀공명을 흠모하다가 곧 뉘우치면서 선정에 든다.
- ③ 성진이 육관대사로부터 질책을 받아 풍도지옥으로 내침을 당하고 도인 양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태어난다.
- ④ 양소유의 나이 10살에 부친을 여의고,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부귀공명을 이룰 과거길에 올라 여덟 미녀와 가연을 맺으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 ⑤ 양소유가 늙어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도를 구하기 위해 여덟 부인과 헤어지려 한다.
- ⑥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 육관대사로부터 크게 깨우침을 얻어 성진과 소유가 하나임을 깨닫고 여덟 선녀와 함께 불도를 닦아 극락세계로 간다.

<꿈>

- ① 성진이 절밥만으로는 허기져 산삼과 석청을 찾아 먹고 욕정을 이기지 못해 수도자로서의 삶에 회의하면서 한편으로 자만하며 스승 육관대사를 기만한다.
- ② 성진이 용궁을 다녀오다 여덟 선녀와 만난 뒤 자신의 적막한 삶에 더욱 회의하고 부귀공명을 흠모하다가, 곧 참회의 기도를 올리면서도 다시 그리워한다.
- ③ 성진이 육관대사로부터 질책을 받아 풍도지옥으로 내침을 당하고, 바람둥이 한량인 양 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태어나 유씨 부인의 정성으로 자란다.
- ④ 양소유가 자신의 여인을 만나고 가문을 빛내기 위해 과거길에 올라 여덟 미녀와 가연을 맺으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 ⑤ 양소유가 늙어 남자기실을 하지 못하고 유씨 부인이 치매에 걸려 사랑기실을 하지 못하는 것에 허망해하는 가운데 자식의 역모사건으로 가족 모두가 죽게 될 지경에 처한다.
- ⑥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 육관대사로부터 크게 깨우침을 얻어 한없는 시간 속에서 꿈과 세상이 둘이 아님을 깨닫게 되다.

서사전개의 대비에서 드러나듯이 <구운몽>에서 성진의 갈등은 여덟 선녀와 만난 뒤에 일어나고 있고, 성진의 고뇌는 승려로서 수도하는 삶과 세속인으로서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은 삶인가에 대한 고뇌이다. 이후 사건전개에서 <구운몽>은 양소유의 삶을 그려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주된 문제로서 서술되고 있다.

이에 반해 <꿈>에서 성진의 갈등은 여덟 선녀를 만나기 전부터 제기되고 있고, 성진의 고뇌는 인간이면 누구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욕정에서 비롯되는 고뇌이되⁴⁾ 다만 성진은 수도하는 승려이기에 더욱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성진의 고뇌의 시작은 자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욕정을 금하는 불가의 삶에 대한 회의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고뇌의 핵심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자신의 가고자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길과의 대립 갈등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의 존재의미를 있게 해주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는 성진 자신의 내면세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당면하게 되는 존재의미 문제와 직결된다. 사람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⁴⁾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꿈>은 산천을 배경으로 하면서 각시거미와 사람들이 사는 집을 짓는 것을 통해 그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작품 시작에서부터 봄을 맞아 기운이 생동하는 산야의 모습과 혈기왕성한 성진을, 바람과 빛을 이용하여 집을 짓는 각시거미와 산세와 풍광과 지맥에 따라 집을 짓는 인간의 집을 비유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명현상이고 자연에 바탕하여 삶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연결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시거미의 그물집과 인간세상의 시간을 연결하여 그물에 걸린 곤충이 파괴되지 않은 것이 없듯이 흐르는 시간 속에 놓인 인간이 죽지 않은 자가 없음을 말해 우주에 사는 모든 생물은 자연의 섭리인 ‘우주의

4) 심치열, 「<구운몽>의 현대적 계승과 변용 연구」(『古小說研究』 제16집, 2003, 175쪽)에서 “결국 입몽 전후에 전개되는 서사 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구운몽>의 경우는 성진이 종교적인 갈등에 의해 회의하게 되는 반면, <꿈>에서는 인간 내면에 내재한 본능적 생명력에 대한 자각이 보다 더 직접적인 갈등의 계기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고 했다.

5) 이는 <꿈>에서 양소유가 늙어 사내구실을 못하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 유씨 부인을 보면서 “나는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태껏 내가 누린 영화는 무엇인가. 대관절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가.”(『꿈』 ②, 277쪽)하고 절망하고 있는 결말부분과 연결해서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근원적인 운행원리와 힘의 흐름'에 따라 나아가고 있음을 작가는 의도적으로 서술하여 인식하게 유도하고 있다.⁶⁾

이러한 시각에서 육관대사가 성진을 단죄하고 윤회시키는 목적이 <구운몽>과 <꿈>에서 각각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구운몽>에서는 육관대사가 성진이 여덟 선녀를 만난 이후 계율을 어긴 것에 대해 단죄하면서 수도자로서의 근본인 마음의 중심을 잃은 것을 되찾게 해주기 위해서 윤회를 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꿈>에서는 육관대사가 성진이 한 인간으로서 평소에 보이고 있는 행실인 본능적인 욕망에 따른 성욕과 명예욕에 대해 단죄하면서 성진으로 하여금 시간 즉 유한한 삶을 극복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제 본성을 찾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려고 윤회를 시키고 있다.

이쪽 삶과 저쪽 삶 중에 가보지 못한 삶으로 인해 회의를 생겨 일어난 갈등은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초점이 맞추어지지만, 인간의 본능적 욕망으로 인해 회의를 생겨 일어난 갈등은 삶 자체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해소되는 문제이기에 삶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래서 <구운몽>에서는 부귀공명을 취하는 저쪽의 삶을 살아보게 하는 것으로 각성의 방편을 삼고 있고, <꿈>에서는 욕망충족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각성의 방편을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꿈>은 어떤 삶을 택할 것인가 하는 <구운몽>과 달리 자연의 섭리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삶의 의미를 인식하도록 서사를 짜고 있다.

2) 명분 중심의 삶에서 본능적 욕망 중심의 삶으로

성진이 꿈꾸기 이전의 서사에서 드러난 관점의 차이는 등장하는 인물의 삶의 양상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꿈꾸기 이전 <구운몽>의 성진은

6) “그래, 성진의 자위행위도 우주 춤사위의 한 표현일 것이다”(『꿈』 ①, 26쪽) 라고 작가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그 구체적인 한 예이다.

수도자로서의 당위적 규범을 어긴 것 대해 고뇌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고 <꿈>의 성인은 규범보다 근원적인 본능적 욕망에 집착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⁷⁾ 지켜야 될 도리인 명분과 본능적 욕망과의 대조적인 양상은 꿈속의 인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양처사의 경우,

處士 柳氏더러曰, 내 본디 世上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더불어 塵世에 因緣이 있는 故로 오래 이 땅에 머물더니 蓬萊 仙子들이 자주 便紙하여 오라 하되 그대 외로움을 念慮하였더니 (『九雲夢』, 27쪽)

아이고, 무정하고 무정한 사람, 제 여편네 몸푸는 줄도 모르고 어디서 무슨 잡지랄을 하고 있는고! 늙수그레한 아낙이 투덜거렸다.<…> 양처사는 지금 성인의 한 주막집 봉숫방에 잠들어 있다. 밤새도록 노는 계집을 안고 텅굴다가……. (『꿈』 ①, 57-58쪽)

유씨부인의 경우,

柳氏 兒子の 志氣 碌碌치 아님을 보고 비록 遠路에 離別을 念慮하나 마침내 막지 못하더라.(『九雲夢』, 29쪽)

유씨부인은 아들 소유를 치마폭 속에 가둬두었다. 바람 불면 날아갈까, 땅 바닥에 놓으면 깨어질까, <…> 한사코 곁에 두려고만 했다.(『꿈』 ①, 68쪽)
승상부 속의 나날이 견딜 수 없었다. 아들 곁에 살면서도 아들 옆에 한번

7) 여덟 선녀 또한 <구운몽>에서는 선계의 여인으로서 간략하게 그려지고 있고, <꿈>에서는 피와 살을 가진 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여덟 선녀는 선계의 여인으로서 살려고 하기보다 자태를 뽐내며 “해나 달이나 별들을 향해 교태를 부리고 세속의 남자들을 만나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꿈』 ①, 31쪽)있고 그런 감정으로 인해 인간 계로 쫓겨나 ‘시간의 물랫살’의 고통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앉아 볼 수도 없고, 그의 손을 한번 잡아볼 수도 없고, 그의 달콤하고 고소한 체취 한번 맡아볼 수 없는 쓸쓸한 삶.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아들 소유가 여자들을 줄줄이 거느리고 사는 꼴을 보는 것이었다. <...> 남편 양처사가 바람피울 때 일어났던 심화가 새로이 일어나고 있었다.(『꿈』 ①, 217쪽)

인용에서처럼 양처사와 유씨부인은 <구운몽>에서는 세속의 욕망을 벗어난 도인과 규범에 순종하는 여인으로 간략하게 제시되고 있고 <꿈>에서는 욕망만을 쫓는 오입장이와 한 많은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꿈>의 유씨부인은 바람둥이 남편으로 인해 고생하며 생과부처럼 지내고 있고 그 한과 원망은 가문에 대한 생각보다 깊어 아들을 소유하려는 빗나간 욕망으로 나타난다. 아들인 양소유가 장원급제하여 가문을 빛내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어 기쁘다는 감정보다 자신의 삶의 허전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유씨 부인의 모습은 자신의 욕망을 더 깊이 의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채울 수 없는 욕망은 더 큰 허전함을 낳고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대궐같은 집에서 겉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면서도 마음의 공허함을 메울 수 없어 치매에 걸리게 되고 추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양소유의 경우, <구운몽>과 <꿈>에서 양소유가 여덟 여인을 만나고 부귀공명을 마음껏 누리는 겉으로의 삶은 같지만 삶의 목적과 삶을 대하는 자세, 세계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少游 하루는 母親께 아뢰되 父親이 天上으로 가실 제 兒子로 門戶를 맡겨 계시니 이제 집이 가난하여 母親이 근심하시니 兒子 萬一 집 지킨 개 되어 功名을 救치 아니면 父親이 兒子를 期待하시던 뜻이 아니로소이다.(『九雲夢』, 27-29쪽. 밑줄은 필자. 이하 같음)

어느 초여름날 밤에 그는 분명히 어머니 유씨부인을 뿌리치고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물과 몸부림에서 땅을 느꼈고 동시에 자신의 내부에서 하늘을 보았다.

<…>어머니의 대리충족을 위하여 삶을 허비하는 것이 효도는 아니다.
<…> 어디엔가 나를 필요로 하는 화려한 꽃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꽃을 만나러 가야 한다. 『꿈』 ①, 79-80쪽)

<구운몽>에서 양소유의 삶의 목적은 과거급제를 통해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다. <꿈>에서 양소유의 삶의 목적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는 것이다. 가문을 일으키는 일은 부모가 기대하는 뜻을 잘 받드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당시 사회의 당위적 규범이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세워주는 명분이다.⁸⁾ 양소유는 모든 일을 이 명분에 따라 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꿈>에서 양소유가 자신을 한 남자로서 자각한 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기를 생각하는 것은 친지 음양조화의 이치에 따르는 것으로 그것은 본능적 욕망에 충실하고자 하는 행위이며 그것을 통해 쾌락을 얻는 것을 삶의 의미로 삼고 있다.

삶에 대한 자세 또한 <구운몽>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위계질서, 분수에 따른 인간관계를 지키고 있고 남녀간의 본능적 욕망 충족도 유교적 질서에 따른 것이기에 점잖고 숭고하게 그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꿈>에서는 기본적으로 분수에 따른 인간관계 속에 있되 자신의 본능적 욕망을 채우는데

8) 신재홍, 「<구운몽>의 서술원리와 이념성」(『고전문학연구』 5집, 1990, 152쪽)에서 “<구운몽>에서 추구된 현실적 지향성이 유교적 질서에 입각한 조화로운 세계의 구축에 놓인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운몽>의 현실지향성은 가정과 국가의 두 차원에 공통된 질서의 구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철저히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한 것으로서 주인공 양소유에 의해 이루어진 서사적 탐색의 최종적인 귀결인 셈이다.”라고 하고 있는 데서 뒷받침된다.

따라 행위하고 있어 관능적인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양소유와 계섬월이 만나 환락을 나누는 장면을 보면,

섬월이 玉杯를 가득 붓고 金縷衣란 노래를 불러 술을 勸하니 아리따운 態度와 부드러운 情이 사람의 肝腸을 끊을러라. 서로 이끌여 寢席에 나아가니 비록 巫山の 꿈과 洛水의 만남도 이에서 지나지 못할러라.(『九雲夢』, 65쪽)

소유는 방안에 퍼져 있는 섬월의 향내 어린 체취와 활짝 핀 모란꽃처럼 환한 미모에 취하고 색정적인 거문고의 선율에 취하고 사랑의 미약 같은 달콤 새콤한 술에 취했다. <…>

부드럽고 흰 그녀의 두 손을 모아쥐었다. 섬월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서로를 끌어안고 이불 위로 쓰러졌다. 원앙이 수놓인 비단이불은 꽃구름처럼 폭신거렸다. 그는 선녀의 향내 나는 몸을 보듬은 채 꽃구름에 실려 떠가고 있었다. <…>

아무에게서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랑의행위를 그는 익숙하게 해냈다. 이불 속에서 알몸이 된 그는 먼저 그녀의 신비스럽고 성스러운 곳을 코끝과 입술로 냄새 맡고 만지고 입맞추었다.(『꿈』 ①, 123-124쪽)

<구운몽>은 두 사람의 사랑행위를 당대인에게 익은 고사를 통해 상상하게 하면서 점잖고 이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구운몽>에서 남녀간의 본능적 욕망충족을 천지 음양조화의 이치에 따른 것으로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작품에서 이상적인 남녀의 만남으로 인식되는 ‘무산의 꿈’과 ‘낙수의 만남’과 같은 규범화된 사례를 통해 제시되고 있고 또한 유교적 관념에 따라 그 표현도 절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꿈>에서는 본능적 욕망충족이 서사의 주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더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두 남녀의 관계는 봄날과 새의 지저귀, 훈풍과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 남녀감정의 동화를

불러일으키고 꽃과 미모, 색정적인 선율과 원앙을 통해 남녀의 관계를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내어 관능적인 환락을 상상하도록 묘사하고 있다. 양소유와 여덫 여인의 외적 만남에 따른 내적관계가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다.⁹⁾

유교적 질서에 입각한 조화로운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구운몽>의 양소유의 인식과는 달리, <꿈>에서 양소유가 본능적 욕망을 앞세우는 의식의 근저에는 자연의 섭리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근원이 ‘본질적이고 원형질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 없는 것이기에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암컷은 주위에 존재하는 수컷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세고 치열한 수컷한테서 유전자를 받아 가장 우세한 새끼를 낳으려는 본능적이고 원형질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가장 우등한 수컷 밑에 모여드는 것이옵니다. 소신이 승상부 안에 두 부인과 희첩 여섯을 기르고 있다하오나, 그것은 소신이 기르는 것이 아니옵고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남성이다 싶은 소신에게서 유전자를 받고 싶어 스스로 모여든 것이옵니다.(『꿈』 ②, 258-259쪽)

양소유가 월왕의 도전에 대해 천자와 황태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러한 생각은 나비가 생존을 위해 꿀이 있는 꽃을 찾아들고 꽃 또한 생존을 위해 화려한 색깔과 짙은 향기로 벌과 나비를 유혹하는 것이 자연의

9) 설성경은 『구운몽 연구』(국학자료원, 1999, 273쪽)에서 “성진이 현실에서는 실현할 수 없었던 육체의 다양한 탐닉, 자유롭고 새로운 에로티시즘이 여기에서는 유감없이 실현된다”고 했다. 그리고 여덫 여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능적인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는 생명이라는 우주적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명 인간의 육체적(肉體的) 갈망(渴望)과 연루된 관계이다”(같은 책, 296쪽)라고 하듯이 작품 전편을 통해 본능적 욕망에 따른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섭리이듯이 선남선녀의 만남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 생각은 양소유의 삶의 목적에서부터 배태되어 첫 여인인 진채봉을 만나는 데서부터 드러나고 있다.

또한 그것이 인간사의 보편적인 것임을 <시경>을 통해 말해¹⁰⁾ 그 정당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공자가 ‘思無邪’라고 평한 <시경> 속의 ‘인간의 가장 진솔하고 원초적인 진실’을 담은 ‘민초들의 사랑’의 시를 배치하여 ‘수없이 많은 음양의 만남’을 예증함으로써 남녀의 교감에서 얻는 환희와 쾌락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작품 전편을 지배하는 남녀간의 분위기는 본능적 욕망이 관능적이지만 환상적인 아름다움으로 다가오게 한다.

그리고 늙어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少游는 본디 河南땅 배웃 입은 선비라 聖天子 恩惠를 입어 벼슬이 將相에 이르고 諸娘子 서로 좇아 恩情이 百年이 하루같이 萬一 前生 宿緣으로 모두 因緣이 盡하면 各各 돌아감은 天地에 떠뒀한 일이라. 우리 百年후 <…> 樵夫와 牧童이 오르내리며 歎息하여 가로되 <…> 어이 人生이 덧없지 아니리오.<…> 내 將次 張子房의 赤松子 좇음을 效則하여 <…> 不生不滅할 道를 얻어 塵世苦樂을 뛰어나려 하되(『九雲夢』, 411-413쪽)

백능파의 방에 들어갔던 그는 낭패를 당했다. 그의 남성이 뜻에 따르지 않은 것이었다. <…> ‘아, 이제 나는 무슨 재미로 산단 말인가.’(『꿈』 ②,

10) 정경패가 양소유와 혼약을 정하고 난 뒤 혼인날을 기다리면서 “심란해질 때마다 <시경>을 소리내어 읽곤 했는데 <시경> 여기저기에는 수없이 많은 음양의 만남들이 있었다.”(『꿈』 ①, 179쪽) 그리고 양소유가 춘운이 변장한 장여화를 기다리면서 읽는 <시경>에서도 “<시경>의 글귀들 속에는 여인의 분향내와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들이 가득 차 있었다.”, “황하 물너울, 요조숙녀, 골짜기를 덮은 칠패굴 들에는 모두 음기가 서려 있었고, 울어대는 새들에게는 양기가 서려 있었다.”(『꿈』 ①, 232쪽)고 서술되고 있다.

275-276쪽)

‘나는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태껏 내가 누린 영화는 무엇인가. 대관절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가.’

가슴을 쓰라리게 하는 허무감이 그의 존재를 참새가 사라지면서 만들어놓은 검은 점 하나로 축소시키고 있었다. 발부리에 부딪힌 엄지손가락만한 돌맹이가 데굴데굴 굴러 풀섶 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존재도 그 돌맹이처럼 구르고 있었다.(『꿈』 ②, 277쪽)

<구운몽>에서는 부귀공명을 허망해 하면서도 생각을 돌려 도를 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꿈>에서는 육체의 노쇠함에 비통해 하고 인생의 유한함에 절망하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구운몽>은 유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허망해 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꿈>의 양소유는 자연의 섭리를 인식은 하고 있으나 현세적 삶만을 생각하고 본능적 욕구만을 쫓아왔기에 감당할 수가 없어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꿈>에서의 이러한 인식은 신분이 낮지만 인간으로서의 욕구를 분출하는 수월과 분소, 왕바우와 같은 새로운 인물을 만들 수 있게 했다.¹¹⁾

3. 환몽구조 속의 세계와 그 의미의 변화

‘현실-꿈-현실’로 짜여진 환몽구조 속의 세계는 선계와 지상계를 그 공간배경으로 삼고 있다. <구운몽>과 <꿈>은 환몽구조도 같고 그 속에 그

11) 기존연구에서 ‘<꿈>에서 다양한 집단의 인물군상의 모습이 반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것이 ‘현실감을 주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왜 그러한 인물상이 그려지게 된 것인가에 대한 해명은 없다. 그런데 작품속에 내재된 세계관에서 비추어보면 그 의문이 자연스럽게 해소 된다.

려진 세계의 공간배경도 같다. 그러나 인물들이 활동하는 세계의 의미는 서사관점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형상화되고 있다.

<구운몽>의 선계는 육관대사와 위부인과 같이 하늘과 소통하고 귀신을 제도하는 득도한 사람들과 수도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지상계는 선계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 벌을 받는 곳이다. 그런데 그 지상계가 벌을 받아 불행한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려지지 않고 조화롭고 이상적인 삶을 사는 세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작품의 결말도 불교적 논리를 통해 지상의 삶과 선계의 삶을 같은 것으로 보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작가 김만중이 살았던 시대와 그의 현실인식을 살펴볼 때 이해될 수 있다. 김만중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삶의 가치를 추구해 가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¹²⁾ 사회적 혼란기에 굴곡 많은 삶을 산 김만중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것을 <구운몽>을 통해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작품은 대척적인 두 세계의 삶을 환몽구조를 통해 대립시키면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작품이 유교적 삶과 불교적 삶의 대립에서 시작되고 있으니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와 하나 작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둘 다 인정하는 쪽으로 결말을 내고 있다.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이룩한 지상에서의 삶의 세계는 ‘유교적 名分論에 입각한 이상세계’¹³⁾로서 육관대사가 살고 있는 지상 속의 선계처럼 삶의 근본을 잃지 않고 살 때의 그 궁극적인 세계의 모습과 같은 정도라고 할 수 있다.¹⁴⁾

12) 안창수, 『구운몽에 나타난 형식과 내용의 관계』(『영남어문학』 제16집, 1989.) 166-177쪽 참조.

13) 신재홍, 앞의 논문, 163쪽.

14) 신재홍이 “양소유의 세계가 질서에 입각한 조화의 완벽함을 구현해내지 못했다면

이는 어떤 삶이 가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삶의 외형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문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삶의 내용은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그 실천적 자세에서 채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삶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같이하고 그에 따른 실천을 하고 있다면 둘은 다르나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작품에서처럼 두 세계의 삶을 모두 긍정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다.¹⁵⁾

그런데 <꿈>의 공간배경인 선계와 지상계는 <구운몽>과 그 기능이 비슷하지만 <꿈>에서의 선계와 지상계는 하느님이 만들고 거기에 시간의 흐름을 부여함으로써 선계는 지상계의 근원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고 지상계는 선계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사는 인간들의 삶인 지상계의 삶은 유씨부인, 수월, 분소처럼 슬프고 한 많은 삶도 있고 양소유와 여덟 부인처럼 욕망을 채워 행복하게 보이는 삶도 있고 양처사처럼 방탕한 삶도 있어 다양한 삶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결말도 <구운몽>에서 선계의 삶과 지상계의 삶이 같은 것이라고 관념적으로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선계와 지상계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지상계의 삶을 재인식하게 하여 자연의 섭리 속에서 삶의 근본을 깨달아 꿈과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簪 時節 女仙 魏夫人이 道를 얻어 하늘 벼슬을 하여 仙官 玉女를 거느려

각몽 이후 성진의 득도는 불가능했으리라. 이는 하나의 극점에서 또 하나의 극점으로의 이행일 뿐 그 사이의 우열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고 추론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앞의 논문, 162쪽.)

15) 김만중은 “인심과 도심이 어찌 두 마음이 있겠으랴?”(『서포만필』, 홍인표 역주, 1990, 129쪽.)라고 했고, 엄기주가 “性眞과 楊少游로 표상된 유가로서의 道心の 側面과 人心의 側面 즉 산림처사로서, 현직고관으로서의 양면의 완성을 통한 天人合一의 경지야말로 西浦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바라고 본다”(『儒家의 小說의 對應樣相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2.4., 236쪽.)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같이 해석된다.

衡山을 鎮定하였으니 이룬 南嶽 魏夫人이라. <…>

唐 時節에 西域 중이<…> 蓮花峰아래 草庵을 짓고 大乘法을 講論하여
<…> 모두 부르기를 六如和尚이라도 하고 六觀大師라도 하더라.(『九雲夢』,
3-5쪽)

오래 전에 선녀인 위부인이 도를 얻고 나서 하느님의 후원을 받아 선동·
선녀·옥동·옥녀 들을 거느리고 형산으로 와서 새로이 신선세상을 열었다.
구운(九雲)세상. <…>

세상 사람들이 ‘영원’이라고 말하는 시간만 존재했다. 그 세상사람들은 속
세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았다. 다만 이웃하고 있는 다른 선계나, 깨달음의 드
높은 경지에 이르러 있는 육관대사와 그 대사의 깨달은 수좌들하고만 교통·
교류하였다.(『꿈』 ①, 23쪽)

<구운몽>은 문제의 출발이 이쪽 삶과 저쪽 삶의 선택의 문제이기에 인
용에서처럼 작품의 배경인 선계와 지상계를 비교적 단순하게 설정하고 있
으나, <꿈>은 삶의 총체적인 면을 거시적으로 문제삼고 있기에 선계와 지
상계가 <구운몽>보다 더 구체화되고 있다. <구운몽>은 하늘이란 존재는
상징적으로 있고 선계와 지상계의 구분이 불분명한 채 위부인과 육관대사
가 살고 있는 형산이 부각되고 있어 선계와 지상계의 관계가 평면적이다.
이에 비해 <꿈>은 하느님의 주재 아래 위부인이 살고 세속사람들과 교류
하지 않는 신선세상-선계와 지상계에 속하나 신선세상과 교통하고 세속사
람들과도 교류하는 육관대사와 그 제자들이 사는 형산 그리고 양소유와 같
은 세속사람들이 사는 도회지로 구체화 되어 있고 그 관계가 유기적이어서
입체적이다.

여기에 <구운몽>에 없는 ‘태장계 만다라¹⁶⁾’와 ‘태극¹⁷⁾’으로 상징되는

16) 부처의 보리심과 대비심을 태아를 키우는 모태에 비유하여 나타낸 그림. 태장계(胎藏界)는 밀교의 이대법문의 하나. 대일여래의 이성적 부분으로 본디부터 있는 영원한

우주의 근원적인 운행원리와 만물변화의 흐름을 배치함으로써 선계와 지상계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일정한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은 근원인 선계를 중심으로 순환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앞 절에서 우리는 이 우주의 근원적 운행원리와 태극을 자연의 섭리라는 말로 대신해서 말했다. <꿈>은 이 자연의 섭리를 서사전개와 서술의 근본바탕으로 삼으면서 양소유의 삶을 통해 세밀하게 안배하고 있다.

자연의 섭리는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이 있고¹⁸⁾ 드러나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이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비가시적인 것이 가시적인 것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가시적인 것은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과 인간의 생노병사이고 비가시적인 것은 그 시간흐름의 영원함과 그것을 있게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꿈>의 서사전개에서 가시적인 부분은 인물들의 성적욕망 실현과 그

깨달음을 이룬다. 모든 중생에게는 본디 평등하게 대일여래의 이성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모태가 아이를 잘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것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1999)

17) 태극이라는 용어는 『주역』 『계사 상』 11장에서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가 사상(四象)을 낳고, 사상이 팔괘를 낳았다”는 데서 처음 나오는데, 우주만물의 근원이 되는 실체를 가리킨다. 이황의 『성학십도』의 <태극도설>을 보면, “무극인 태극이 있다. 태극이 움직여서 양을 낳고, 움직임이 극한에 이르면 고요해지는데 고요해져서 음을 낳는다. 고요함이 극한에 이르면 다시 움직인다. 한 번 움직임과 한 번 고요함이 서로 뿌리가 되어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니 양의(兩儀)가 세워진다. 음양이 서로 변하고 합하여져서 수화목금토를 낳으니 다섯가지 기운이 순조롭게 펼쳐져서 사계절이 운행한다.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고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며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오행이 생겨남에 각기 그 성(性)을 하나씩 갖추고 있다. 무극인 진리와 음양 오행의 정밀함이 오묘하게 합하여 응집해서 “건도(乾道)는 남성을 이루고 곤도(坤道)는 여성을 이룬다. 건곤의 두 기운이 교감하여 만물을 화생(化生)하니 만물이 끊임없이 생겨나 변화가 다함이 없다.”고 했다.(이황, 『성학십도』, 이광호 옮김, 홍익출판사, 2004, 31-33쪽.)

18) 유씨부인이 “그녀는 아들에게 가시적인 것과 저 너머의 그윽한 어떤 것도 알게 해주고 싶었다”(『꿈』 ①, 77쪽.)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작가가 독자에게 인식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유한한 한계를 서술하고 있는 데서 드러나고 비가시적인 부분은 삶과 존재의 진정한 근원이 어디이고 무엇인가를 사건전개 사이사이에 삽화처럼 간략하게 제시하는 데서 드러난다.

<꿈>은 이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을 연결하는 장치로서 환몽구조를 이용하면서 환몽구조 속의 선계와 지상계의 의미를 다시 설정하고 있다. <구운몽>의 선계는 천상계의 질서가 행해지는 공간으로서 지상계의 삶을 관장하고 있고 지상계는 정벌의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이에 반해 <꿈>의 선계는 비가시적인 세계이고 천상계의 질서가 행해지는 영원한 세계로서 우주의 근원적인 운행원리 속에 편입되면서 지상계의 근원으로서의 의미가 보다 구체화 되어 있고, 지상계는 가시적인 세계로서 선계와의 관계 속에서 지상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공간으로 설정되고 있다.¹⁹⁾

<꿈>에서 비가시적인 세계와 가시적인 세계가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성진이 지상계로 환생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서술에서 유씨부인의 ‘꿈 아닌 꿈’, 백양나무가 양씨들의 시조라는 꿈을 통해서 인데 그것은 또한 선계와 지상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백양나무, 저것 참 보통의 나무가 아니오. 우리 양씨들 시조의 동생분이 된 나무요. 우리 시조는 형제였는데<…>아우는 벼슬이 싫다고 이태백처럼 술 마시고 시 짓고 가문고 타며 기생들하고 풍류를 즐기며 세상을 바람처럼 구름처럼 표박했다오. 한데 어느 겨울<…>신선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산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듬해 봄에 시체로 발견되었다오. 형님이 울며불며 동생의 장례를 치러주었는데, 바로 그 동생이 쓰러져 있던 자리에 이상스러운 나무 한 그루가 솟아났다오<…>그 나무를 은사시나무라고도 하고 백양나무

19) 앞절에서 윤희의 목적에 대한 비교에서 밝혔듯이 육관대사가 성진으로 하여금 지상계의 삶을 통해 ‘본성을 찾고 영원’을 살 수 있는 신선세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성진을 윤희시키고 있는 데서 드러난다.

라고도 하는데 <…> 그런데 내 속에 바로 그분의 낮이 썩어 있는 모양이요。」(『꿈』 ①, 61-62쪽)

양씨 시조 동생이 죽어 묻힌 곳에 백양나무가 생겨나듯 모든 것은 인과 관계에 따라 생성소멸되며 그것으로 인해 풍류를 즐기던 시조의 낮이 후손인 양처사에게 전해져 한량이 되었다는 논리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작용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유씨부인의 백양나무 꿈은 지상계와 그 너머의 세계와의 연관을 말하는 것이면서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며 사람이란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연결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존재의 근원인 선계의 의미는 천자가 양소유를 부마로 간택하려고 시험하는 말에 양소유가 대답하는 말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하늘과 땅이 질서를 잡기 이전에는 다만 어지러운 혼돈만 있었는데, 어느 날 우주를 쪼개고 빗물꺄 듯한 기세로 뒤흔든 천둥과 번개가 질서를 잡기 시작했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우주 속의 정령들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령들, 그 우주의 원초적인 기가 땅 밖으로 솟구쳐오른 결과물이 식물이 됩니다.<…> 그것을 동물들이 먹고 삽니다. 그 식물과 동물들의 고기를 통해 육체적인 영양소를 얻으면서, 동시에 새까만 머리털로써 하늘의 신비와 유희함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 식물의 뿌리는 땅속을 향해 뻗어가는데 인간의 영혼의 뿌리는 하늘을 향해 뻗어가고, 식물의 꽃은 하늘을 향해 피는데 인간의 양물(남근)과 음물(여근)은 땅을 향해 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주가 행한 모든 노력의 결과물인 것이입니다. 하늘과 땅, 임금과 백성, 남자와 여자는 우주의 이롭다운 조화입니다.』(『꿈』 ①, 281쪽)

이 대답은 존재의 근원과 우주의 질서를 밝히는 것이고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세상 시작과 생존의 이치

를 마련하고 있는 그 세계는 지상계의 근원이고, 작품에서 양소유의 삶인 지상계를 지배하는 세계로서 신선세상으로 설정되고 있으니 그 세계는 선계에 해당된다. <꿈>이 작품 시작에서부터 ‘정령’을 내세우고 작품 곳곳에 ‘정령’을 안배하여 면밀히 전개하고 있는 것은 선계, 비가시적인 세계인 이 보이지 않는 힘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임을 말하면서 동시에 자연의 섭리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우주의 원초적인 기속에서 남악 형산의 신선세상인 구운(九雲)세상을 구축하고 파란만장한 시간 속인 속세를 말하면서 그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환몽구조의 틀을 이용해서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를 자연스럽게 형상화하고 연결하면서 거기에 각시거미를 통해 우주의 근원적인 운행 원리와 힘의 흐름인 ‘시간’을 겹치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 성진이 꿈에서 깨어 돌아오는 결말부분에서 각시거미줄에 걸린 호랑나비의 비유 또한 자연의 섭리라는 영원한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을 상징한 것이면서 작품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자연의 섭리 속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자연의 섭리라고 말한 우주의 근원적인 운행원리와 힘의 흐름은, 존재의 근원과 우주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인용부분의 문맥을 통해 볼 때, 우주에는 ‘하느님’이란 절대적 존재가 있어 그로 말미암아 우주, 천지의 질서를 잡고 우주의 원초적 기로 만물을 생성하게 하였는데 그 가운데 인간이 가장 고귀한 결정체가 되었다는 것 이것과, 그리고 절대적 존재인 하느님이 ‘선계와 지상계’를 열어 지상에 사는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적인 삶을 살고 다시 선계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근본적인 구조 속에서 인간은 창조된 원리상 위로는 “하늘의 신비와 유현힘”을 받아들여야 되고 아래로는 동식물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동식물 또한 우주의 원초적인 기를 지니고 있고 거기

서 나왔으니 결국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선계의 의미는 모든 것은 한 존재, 한 세계에서 나와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²⁰⁾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를 환몽구조 속에 연결하고 가시적인 세계가 비가시적인 세계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꿈>에서 지상계는 서사진행상으로는 성진의 징벌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그 징벌의 삶을 통해 지상계의 삶의 의미가 진실로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장소로 설정되고 있다. 양소유가 자신의 노쇠함과 유씨 부인의 치매를 경험하면서 ‘나는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태껏 내가 누린 영화는 무엇인가. 대관절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묻고 있는 것은 삶과 존재 의미를 재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특히 성진이 선계에서 죄를 짓고 지상계의 양소유로 환생하는 과정에서 전개되는 육관대사의 말과 연결하여 볼 때, 육관대사가 성진을 지상계로 보내며 위로하는 말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비록 산속에 있을지라도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고 자기 근본을 잊지 아니하면 커켜이 쌓여 있는 티끌 속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올 날이 있는 것이니라. (『꿈』 ①, 53쪽)

지상계의 삶이 선계에서의 그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삶의 근본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어서, 지상계의 삶의 근원뿐만 아니라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하게 한다.²¹⁾ 그 결과 <구운몽>에서는 지상계가 성진이 죄를 짓고 그

20) 저승사자가 성진의 님을 유씨부인의 자궁 안에 밀어 넣어 양처사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긴 서술과정은 삶의 근원이 선계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다.

별을 받는 장소로서 지상계에 윤회한 뒤 자신의 잘못을 확인하는 곳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게 되고, <꿈>에서는 지상계가 징벌의 장소라는 의미는 같지만 선계 즉 비가시적인 우주의 근원적인 운행원리에서 지상계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됨으로써 지상계의 삶이 선계에서의 그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기회의 장소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²¹⁾

여기에 결말부분인 성진의 깨달음은, <구운몽>에서 육관대사의 계승으로 깨닫게 하는 관념적인 깨달음과는 달리, 환몽구조 속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우주의 근원적인 운행원리와 존재의 근원과 삶의 본질을 재인식하게 함으로써 지상계에서의 삶 즉 현세에서의 삶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 순간 성진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빛이었다. 한없는 시간이었다. 모든 것을 죽이기도 하고 태어나게 하기도 하는 시간이었다. 하늘에 걸려 있는 태양빛보다 더 휘황한 환희의 빛이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들의 법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법(壞法)이라고.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다. 시간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짓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진실 중의 진실이다. 지옥과 극락도 그 시간 속에 있다.』

성진은 다시 한번 ‘아!’하고 부르짖었다.<…> 꿈과 세상은 둘이 아니고 하나였다.(『꿈』 ②, 286-287쪽.)

모든 것을 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한없는 시간’과 생로병사에 갇힌 보이는 시간 속에서 그 한없는 시간을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인식하지

21) <구운몽>에서 육관대사가 한 같은 말은 삶의 근본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국한되고 있다.

22) 지상계의 양소유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양소유의 삶 전체에 대해 그 본래의 의미를 묻는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못하고 살고 있는가에 따라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옥과 그 고통을 통해 본성을 깨우쳐 영원함을 이루어가는 기쁨의 세계인 극락으로 갈라지고 있음을 깨우치게 됨으로써 꿈과 세상이 하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은 가시적인 세계를 포괄하는 비가시적인 세계를 현실세계에서 받아들이고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머의 한없는 시간을 인식하여 생로병사의 유한한 삶 속에서 하늘이 부여한 사람됨의 근본인 본성을 찾아 미망에서 벗어나게 될 때 지금 이 자리가 극락세상이고 영원한 세계에 들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4. 세계인식의 전환과 삶의 의미

<구운몽>이 환몽구조 속에 선계와 지상계를 통해 그려낸 세계는 표면적으로는 불교적인 형상을 하고 있으나 이면적으로는 조선조 사회의 세계관을 표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³⁾ 그것은 조선조 유학의 바탕이 되고 있는 四書 가운데 <중용>²⁴⁾이나 <近思錄>²⁵⁾을 통해서 볼 때 찾아볼 수

23) “김만중의 불교는 불교 그 자체로서 의의를 가진다기보다 주자학에 대한 비판을 전개할 수 있는 논거로서 더욱 긴요한 것이다.”(조동일, 『韓國文學思想史試論』, 지식산업사, 1978, 202쪽.)라고 했듯이 김만중은 불교적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드러냈다. 엄기주도 “性眞과 楊少游로 표상된 유가로서의 道心の 側面과 人心的 側面 즉 산림처사로서, 현직고관으로서의 양면의 완성을 통한 天人合一의 경지야말로 西浦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바라고 본다”라고 했다.(앞의 책, 236쪽.)

24) 『중용』에서 “하늘이 부여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한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고 하고, 그 주에 ‘성은 곧 이치다. 하늘이 음양과 오행으로 만물을 화생함에 기로 형상을 이루고 이치를 또한 부여하니 명령하는 것과 같다. 이에 사람과 물건이 생할 때 각각 그 품수한 바의 이치로 인하여 건순오상의 덕을 삼으니 이른바 성이다.’(性卽理也 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氣以成形而理亦賦焉 猶命令也 於是人物之生 因各得其所賦之理 以爲健順五常之德 所謂性也)라고 하듯이 하늘이 태어남과 삶의 근원이 됨을 알 수 있다.

있다. 사람은 하늘로부터 그 사람됨인 본성을 부여받고 태어나 그 본성을 알고 본성대로 살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는 생각과 자연변화의 근원인 ‘태극’으로부터 생성과 소멸이 끝없이 순환된다는 인식은 조선조 유가의 기본적인 생각이며 이는 삶의 근본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유학자인 김만중이 <구운몽>에서 구축한 세계도 이러한 인식적 바탕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바탕 위에서 김만중은 유불의 삶을 제재로 하여 어떤 삶이 가치 있는지를 문제삼고 있다.

<꿈>에서 전개되는 세계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식적 바탕 위에 있다. 다만 우주의 본체와 그 운행을 작품상에서 만다라와 태극, 시간으로 상징 하면서 선계와 지상계를 통해 그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도록 짜놓음으로써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연의 섭리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꿈>은 환몽구조 속에 영원한 흐름인 자연의 섭리라는 우주의 근원적인 운행원리를 도입하고 존재의 근거로서 선계를, 존재의 의미를 온전히 인식하는 곳으로서 지상계를 설정하여, 사람이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태어나 지상에서 사람의 근본을 온전히 구현해감으로써 고통과 허망함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영원함을 얻어 본래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논리를 펼쳐내고 있다.

작가가 <꿈>을 통해 <구운몽>이 생성된 시대의 이러한 세계관을 선계와 지상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면화하고 다시 인식하게 하는 것은 현대의

25) 주희와 여조검이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 등의 학문의 중심문제들과 일상생활에 요긴한 부분들을 뽑아 편집한 『근사록』 권1에 주17에서 인용한 내용처럼 ‘태극’을 말하고 있는데, “성리학은 ‘태극’·‘하늘’·‘이’를 우주의 본체이며 모든 현상의 궁극적인 진리로서 설정한 다음, 이 궁극적 진리와 인간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인간의 심성론을 밝히고 인간의 심성론에 기초하여 인간의 도덕수양론을 밝히는 형이상학적 대체계를 갖추었다.”(이황, 『성학십도』, 이광호 옮김, 홍익출판사, 2004, 31쪽.) 고 했듯이 우주의 본체를 이치적으로 설명한 것이지만 ‘태극’, ‘하늘’은 영원한 것이며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변화의 근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계가 과학적 시각에 갇히고 욕망중심적인 사고에 매몰되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거부하거나 바라보지 못해 불행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에서 다음과 같은 각시거미의 말은,

세상의 모든 꽃들의 웃음소리, 대나무들의 떠들어대는 말, 드렁칫의 능글거리는 거짓말, 새들의 색정적인 지저귀, 빛과 그림자와 바람의 은밀한 언어들
을 알아듣는 귀를 가진 것은 자기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가슴을 내밀고
당당하게 살고 있었다.(『꿈』 ①, 25-26쪽)

인간이 우주의 거대한 흐름과 비가시적인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지적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세계를 인식하고 살 때의 충만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의 기계론적 세계관은 개인이 주체가 되는 원리를 만들어 냈지만²⁶⁾ 과학적 시각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배제함으로써 개인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²⁷⁾ 주체의 불안은 삶에서 얻을 만한 것이 없다는 개인적 무의미감²⁸⁾을 낳아 자신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몸, 욕망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었다. 양소유나 양처사, 유씨부인을 통해 나타나는 욕망중심적인 삶은 이러한 양상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26) 이마무라 히토시, 『근대성의 구조』, 이수정 옮김, 민음사, 1999, 120쪽.

27) 알랭 투렌은 근대의 토대인 “합리주의 사상은 가장 공개적으로 반(反)개인주의적이다”라고 했다.(『현대성의 비판』, 정수복·이기현 옮김, 문예출판사, 1995, 333쪽.)

28) 앤소니 기든스,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권기돈 옮김, 새물결, 1997, 47쪽.)에서 “개인적 무의미감, 곧 삶에서 얻을 만한 것이 없다는 느낌이 후기 현대의 상황에서 근본적인 정신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실존적 고립’(existential isolation)은 타인들로부터 개인의 분리라기보다는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실존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자원들로부터의 분리이다.”고 했다. 이마무라 히토시가 “실존적 불안을 달래주는 <확실성>과 함께 인간의 생각하는 힘의 확실성도 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을 마치 기계처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앞의 책, 111쪽.)

수 있다.²⁹⁾

그런데 욕망중심의 삶은 그 사람됨의 바탕인 본성을 보지 못하거나 파괴하여 결국 주체를 파괴하고 만다. 양소유가 늘어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잃으면서 자신의 삶에 절망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주체의 회복이 요청되는데 그것은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근대의 기계론적 세계관은 과학적인 합리적 사고방식을 낳아 세계인식을 가시적인 세계 내에 한정되게 했다. 비가시적이고 초월적인 것이 배제됨으로써 죽음 너머의 세계는 알 수 없는 것이 되어 인식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세계내 존재로서의 인간은 도리어 죽음을 향해 존재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거기에 허무의식이 생기고 그 허무의식은 하이텍거처럼 선구적 결단을 내려 현재를 좀더 본래적으로 살게 하기도 하지만 죽음에서 오는 유한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진정한 주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작가는 생성과 소멸이란 영원한 자연의 순환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그 자연의 순환을 있게 하는 존재와 자신을 하나가 되게 하는 데서 찾고 있다. 그리하여 실존적 불안을 없애고 본래의 자신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작가가 작품에서 우주의 근원적 운행원리와 힘의 흐름인 만다라와 태극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내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³⁰⁾

자연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우주가 행한 모든 노력의 결정체로서 비가시적인 우주의 근원적인 운행원리 속에

29) 설성경은 “<꿈>에서 보여주는 성애의 다양한 탐색은 육체적 욕망실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투영이다” 라고 했다.(앞의 책, 292쪽.)

30) 작품에서 자연의 섭리를 서사전개에서 안배하고 존재의 근거인 선계와 존재의미를 구현하는 곳으로서 지상계를 설정한 것은 <구운몽>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길은 근대의 이성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통찰하고 의식의 확장을 통해 존재의 근원과 하나가 되는 거기에 자신의 존재의미를 세우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존재하고 있으니,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유한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삶의 근원으로서 선계가 마련하고 있는 사람답게 해주는 존재의 뿌리를 외면하고 살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유한한 존재이기에 삶의 허무함도 느끼게 되지만 그 유한함 속에서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 회복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 그 허무함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인식과 존재의 근원적 삶으로의 회복이란 인식의 전환을 통해 존재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는 이것을 ‘꿈’으로 상징하고 우리에게 존재의 뿌리를 돌아보게 하고 있다.

춘운이 통판택 규수로 변신한 난양공주 이소화와 만나 이소화가 그린 그림을 평하는 자리에서 말한 ‘꿈’³¹⁾과 이소화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말하는 말 속의 ‘꿈’³²⁾ 그리고 황태후와 이소화와 정경패의 대화에서 나오는 사람이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로 되는 ‘꿈’이 그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둘은 서로에게 먼저 말을 하라고 미루는 눈짓을 했다.

황태후가 난양에게 먼저 말을 하라고 했다.

난양공주가 먼저 「사람의 몸에 있는 배꼽과 같은 ‘그 어떤 것’이옵니다, 하고 말했다.

「땅은 기를 뿜어내어 삼라만상을 만들었고, 그 삼라만상은 모든 기를 조합

31) “난만한 꽃송이들을 그렸을뿐, 나비와 벌을 홀리는 깊고 그윽한 꿀샘을 곁들여 그리지 않았을지라도 그 그림 속에는 꿀샘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꿀샘보다 더 그윽한 꿈(바람)이 밤새 멎힌 이슬보석 같은 정령처럼, 찬연한 달과 푸른 셋벌처럼 떠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좋은 그림일 수 없습니다.”(『꿈』 ②, 96쪽.)

32) “그렇사옵니다. <…>여인의 몸에 비유하자면, 그 몸의 가장 한가운데는 입술산 협곡의 늪지대인 썸이옵니다. 그곳에는 생명을 생산해내는 동굴이 있고, 환락을 조장하는 꿀샘만 있을 뿐, 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꿈의 깊은 뿌리는 그 위쪽에 있는 배꼽(어머니 뱃속에서 자랄 때 피를 공급받은 탯줄)에 박혀 있고 저 질푸른 하늘과 깊은 땅속으로 뻗어 있는데”(『꿈』 ②, 96쪽.)

하여 드디어 사람을 지어냈는데, 사람이 ‘그 어떤 것’이옵니다. 또 그 사람의 속에 들어 있는 ‘현묘한 생각’이나 ‘꿈’이 곧 그것이옵니다.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불멸이며 어디에나 흩어져 있으면서 우주 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인 현묘하고 또 현묘한 ‘도(道)’라는 것도 바로 그 배꼽하고 같은 것이옵니다.」

「도! 아아, 도라!」

황태후가 탄성어린 소리로 말을 하자, 이어 경패가 말했다.

제 생각으로는 ‘하나’라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존귀합니다.

「하나! 하나라니?」

황태후가 경패의 두 눈을 뚫을 듯이 바라보았다. 경패가 말을 이었다.

「장자는 꿈에 나비가 되었사옵니다. <…> 우주의 참된 이치와 순리를 깨닫게 되면 피차 구별이 없어지는 것, 즉 ‘하나’가 되는 것이옵니다. 떠남과 머뭇, 옳음과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존귀함과 천함, 부처님과 중생, 낮과 밤이 다 하나이옵니다.」

「바로 그 도라는 것하고 하나라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르나?」

황태후가 물었다.

「그것이 그것이옵니다.」(『꿈』 ②, 120쪽)

존재의 근원인 ‘꿈’은 배꼽에 비유되고 그것은 사람의 ‘현묘한 생각’-도로써 표현되고 있다. 이는 사람이란 존재가 본래 생명이 태동되는 하늘, 선계와 연결되어 있고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현묘한 생각-도를 실현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가르키고 있다.

배꼽은 母體 내의 태아에게 있어 생명줄이었던 그 흔적으로서 生의 근원인 모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있다. 태아가 탯줄을 통해 모체로부터 생명을 받고 자리듯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사람됨을 부여 받아 숨과 음식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배꼽과 같은 우주의 존재인 사람은 자신을 있게 한 땅, 우주,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존재의 의미가 있으며 그 궁극적인 근원은 하늘이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땅의 주인이고 우주의 중심이나 모체

와 배꼽처럼 하늘을 근원으로 하지 않는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 숨과 음식이 모두 하늘의 한 기운에서 나왔듯이 사람은 하늘을 본받고 살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다. 존재의 뿌리가 하늘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생명의 근원인 하늘, 선계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고 사람됨은 하늘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나에서 나와 삼라만상을 이루나 근본은 하나일 뿐인 진리에 따라 하늘이 못 생명을 낳고 살리듯이 모든 존재를 살리는 마음을 실천해갈 때 비로소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 자체는 날 때부터 그 ‘꿈’, ‘현묘한 생각’을 지니고 있기에 존귀하고 평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그 ‘꿈’을 알고 그것에 맞게 살 때만 고귀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고귀하면서도 고귀하지 않게 된다. 또한 사람은 그 ‘꿈’에 맞게 살 때에만 스스로 충족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 “극락세상”을 얻게 되는 것이다. 모든 존재가 한 뿌리에서 나왔기에 피차구별이 없는 하나이나 구별이 있는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스스로 충족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인 것이다.

이 모습을 양소유의 가족관계에서 마련하고 있다. 여덟 여인이 양소유를 중심으로 살면서 양소유를 혼자 차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고독을 서로 짝을 지어 해소하고 나누는 가운데 “그들은 우애 깊은 형제나 의리 돈독한 벗보다 더한 정의를 가지게 되었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 몸 한가지로 생각해주었다.”³³⁾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파당을 짓지 않았고 자기의 짝에 대한 편역도 하지 않았다.”³⁴⁾ 그래서 신분이 제일 높은 난양공주가 모든 여인을 영양공주의 누각에 모이게 하여 하는 말³⁵⁾은 바로 몸이 각각이고 신분과 처지가 다

33) 『꿈』 ①, 268쪽.

34) 『꿈』 ①, 269쪽.

35) “우리 두 아내와 여섯 미녀는 서로에 대하여 알 것들을 다 알았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고 친하게 지냄은 살과 뼈처럼 밀접하고 그 우의는 형제보다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라는 깨달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어서, ‘하나’라는 우주의 참된 이치가 구현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성진이 “꿈과 세상이 둘이 아니고 하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온전히 존재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성진이 욕망을 충족하며 산 꿈속의 양소유의 삶이나 절에서 수도하며 사는 삶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을 깨달았다는 그것은 꿈속의 양소유는 존재의 근본을 모르고 육체의 욕망에만 집착하여 살아서 허망하게 된 것이니, 세상을 살아가는데 존재의 근본을 알고 살아가면 세상이 선계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것을 통해 참된 삶과 존재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것을 위해 작가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마련하고 있다. 작품에서 천자가 ‘배꼽’의 의미를 묻는 것에 대해 양소유가 그 대답으로 연이 나는 것을 비유해서 말하는 내용은, 연이 날게 되는 것은 그 힘의 중추, 균형점이 있어서 이듯이 몸에서 배꼽이 그런 의미를 지닌 것이라는 것³⁶⁾인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지옥으로 가고 극락으로 가는 길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자유의지와 그 선택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작품에서 이 자유의지를 작품 시작과 끝에서 육관대사의 말을 통해 중요로이 서술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사건이 시작되고 마감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시작부분에서 육관대사가 성진을 풍도로 내치면서 “내 뜻은 바로 네가 가고자 하는 데로 가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결말 부분에서 꿈에서 깬 성진을 다시 깨우치면서 “네 스스로 흥을 타고 갔다가

더 진합니다. 아마 이 세상의 청사에 고결하고 아리깝게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신분의 귀천을 따지고 가리며 서로를 어렵게 대접하지 말고, 나이에 따라 혹은 양승상을 만난 순서에 따라 형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아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시다. 그러면 우리들의 사이는 더욱 아름답고 예쁘게 잘 화합될 것입니다.”(『꿈』 ①, 270쪽.)

36) 『꿈』 ①, 272-273쪽에서 “배꼽, 그 우주의 비의”라고 제목을 달고 따로 항목을 만들어 서술하고 있다.

흥이 진하여 돌아왔는데 내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에서 그리고 깨달은 성진이 “누구를 원망할 수도 탓할 수도 없사옵니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데서 자유의지가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관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가는 ‘꿈’을 잃고 헛된 꿈을 좇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주의 근원적인 운행원리와 존재의 근본이고 삶의 본질인 ‘꿈’ 즉 모두가 하나임을 인식하게 하여 자신의 진정한 존재의미를 알게 하고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자유의지로 하여금 그 참된 ‘꿈’의 길로 가서 행복한 삶을 이루기를 요청하고 있다 하겠다.

이성 중심의 근대세계가 안고 있는 한계 즉 합리성의 추구와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 현대인들에게 도리어 몸과 욕망에 집착하게 만들어 본능적인 욕망, 성과 같은 것에 관심을 돌리게 하고 있지만 더욱 더 길을 찾지 못하고 미망에 헤매고 있을 뿐이다. 작가는 이에 대한 반성과 대안으로써 환몽구조 속에 가시적 세계인 현실계와 비가시적 세계인 현실 너머의 세계를 유기적으로 형상화하여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나 영원한 삶, ‘가장 참된 자유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인식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하겠다.

육체의 유한함에서 오는 허무와 삶에서 얻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하는 영혼의 허기짐이 육체적 욕망에 탐닉하게 하지만 육체에 매인 허기진 삶은 그 욕망에 탐닉할수록 허망함만 남길 뿐 영혼의 충족과는 멀어지게 된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충족감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보람은 육체로 기울어진 불균형을 인식하고 허기진 영혼을 채우는데서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하나인 데서 온전한 존재일 수 있듯이 원래 육체와 영혼이 온전한 하나였던 사람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5. 결론

<꿈>은 <구운몽>의 기본 줄거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다시 쓰고 있기에 표면적으로는 <구운몽>의 내용을 부연한 남녀간의 관능적인 이야기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 속에서도 세계를 보는 시각을 달리 설정하고 작품구조의 의미를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꿈>은 <구운몽>이 문제삼고 있는 ‘어떤 삶이 가치 있는가’가 아닌 ‘삶이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자연의 섭리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서사를 전개하여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인간의 삶을 재인식하게 하고 있다. <꿈>은 이것을 위해 <구운몽>의 환몽구조와 그 속의 세계인 선계와 지상계를 이용하되 <구운몽>과 달리 선계와 지상계를 우주의 근원적인 운행원리의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재구조화하고 있다.

<구운몽>의 선계와 지상계는 성진의 삶을 전개하기 위한 배경으로 기능하는데서 머물지만 <꿈>의 선계와 지상계는 우주의 운행과 영원한 시간과 같은 비가시적인 세계와 생노병사와 같은 가시적인 세계를 내포하면서 그것을 환몽구조를 통해 자연의 섭리라는 것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그 결과 <꿈>과 <구운몽>의 선계와 지상계는 그 기능이 비슷하지만 <꿈>에서의 선계는 우주의 근원적인 운행원리 속에서 지상계의 근원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고 <꿈>에서의 지상계는 정벌의 공간으로서보다 선계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고 있다.

<꿈>이 환몽구조 속에 우주의 근원적인 운행원리를 도입하고 존재의 근거로서 선계를, 존재의 의미를 온전히 인식하는 곳으로서 지상계를 설정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사람이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태어나 지상에서 사람의 근본을 온전히 구현해감으로써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게 된다는, 이러한 인식을 형상화한 것은 근대의 기계론

적 세계관에 매몰되어 욕망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본래의 자신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성 중심의 근대세계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오게 된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삶에서의 무의미감이 현대인들에게 도리어 몸과 욕망에 집착하게 만들었고 성과 같은 본능적인 욕망에 더욱 더 빠져들게 하고 있지만 현대인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미망에 헤매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작품은 ‘꿈’을 잃고 헛된 욕망을 좇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주의 근원적인 운행원리와 존재의 근본이고 삶의 본질인 ‘꿈’, ‘하나’를 인식하게 하여 자신의 진정한 존재의미를 알게 하고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자유의지로 하여금 그 참된 ‘꿈’의 길로 가서 행복한 삶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그것이 <구운몽>의 계승과 변용으로서 <꿈>이 갖는 의의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한승원, 『꿈』 ①, ②, 문이당, 1998.

김만중, 『九雲夢』, 정병욱·김동욱 교주, 『한국고전문학전집』 제3권, 보성문화사, 1978.

『中庸』

『近思錄』

2. 논문

신재홍, 「九雲夢의 서술원리와 이념성」, 『고전문학연구』 5집, 1990, pp.128-167.

심치열, 「<구운몽>의 현대적 계승과 변용 연구-한승원의 <꿈>을 중심으로-」, 『古小說研究』 제16집, 2003, pp.165-197.

안창수, 「구운몽에 나타난 형식과 내용의 관계」, 『韓民族語文學』 16집, 1989, pp.157-190.

엄기주, 「儒家의 소설의 對應樣相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2.4.

우한용, 「한승원 소설의 談論 特性」, 『국어교육』 제90호, 1995, pp.153-177.

윤호진, 「金萬重의 文學과 思想-方法과 態度를 中心으로-」, 『우리문학연구』 6·7집, 1988, pp.65-87.

장효현, 「<九雲夢>의 主題와 그 收容史에 관한 研究」, 『金萬重文學研究』, 국학자료원, 1993, pp.111-140.

3. 단행본

김만중, 『西浦漫筆』, 홍인표 역주, 일지사, 1990.

김병국, 『서포 김만중의 생애와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설성경, 『구운몽 연구』, 국학자료원, 1999.

송경빈, 『페로디와 현대소설의 세계』, 국학자료원, 1999.

이황, 『성학십도』, 이광호 옮김, 홍익출판사, 2004.

임철우·임동화·하응백, 『한승원의 삶과 문학』, 문이당, 2000.

정규복, 『金萬重研究』, 새문사, 1983.

조동일, 『韓國文學思想史試論』, 지식산업사, 1978.

- 피종호 엮음, 『몸의 위기』, 까치글방, 2004.12.
- 한자경, 『불교철학과 현대윤리와의 만남』, 예문서원, 2008.9.
- 한국동양철학회 편, 『東洋哲學의 本體論과 人性論』,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3.
- 린다 허천, 『페로디 이론』, 김상구·윤여복 옮김, 문예출판사, 1993.
- 알랭 투렌, 『현대성의 비판』, 정수복·이기현 옮김, 문예출판사, 1995.
- 앤소니 기든스,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권기돈 옮김, 새물결, 1997.
- 이마무라 히토시, 『근대성의 구조』, 이수정 옮김, 민음사, 1999.
- 한스 요나스, 『생명의 원리』, 한정선 옮김, 아카넷,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existence in the Han seung-won's *the dream*(韓勝源의 『꿈』)
- compared with *the cloud dream of the nine*(『九雲夢』)-

Lee, Dong-Gil

This paper is a study about the meaning of existence by the comparison of *the dream* with *the cloud dream of the nine*. In *the dream* it become an issue to recognize life's meaning by changed of the point of view in the narrative, but in *the cloud dream of the nine* the life of confucianism and buddhism become an issue. And by reforming the narrative structure as to procedures about 'dream' in the flowing of cosmos according to the monistic view of the world it was recognized the meaning of existence.

The dream connects the visible dispensation as a lifetime and the invisible dispensation as the eternal in the narrative structure. And it establishes the heavenly life as the root of existence and the earthly life as the place to recognize the meaning of existence. Therefore it unfolds to the thoughts which man is born from heavens to earth and lives decently and returns to heavens. It is an alternative plan as opposed to a mechanistic world-view.

Since it is so, Han seung-won says that it is the true meaning of existence to perceive a truth namely the 'one' as the root of existence and the dispensation and the flowing of cosmos to the moderns.

Key-word : dream, the cloud dream of the nine, dispensation, heavenly life, earthly life, a meaning of existence, narrative structure, a mechanistic world-view

이동길

소속 : 계명문화대학 교양과 교수

주소 : (704-703)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700번지 계명문화대학

전화번호 : 053-589-7524, 011-9563-6311

전자우편 : dglee216@kmcc.ac.kr

이 논문은 2009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09년 12월 1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09년 12월 19일 게재 확정됨.